

교회소식

- 2019 단기선교
 - 일정/장소: 2월18일(월) - 22일(금) /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 오늘 친교 후, 소예배실에서 선교팀 모임을 갖습니다.
 - **단기선교 전단지**(일정, 선교팀 명단, 기도제목, 도와주실 일들)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셔서 **기도로 참여해주세요.**
- 재정부: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예산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장로 투표 공동의회
 - 3월10일(주) 예배 후 본당
 - 후보자: 김동수, 서영수
 - 선출이 확정되면 장로임직식을 3월31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2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구자금 목사 (시 37:1-11, 39-40)
이번 주 친교: 노미라 집사, 송은주 집사
다음 주 친교: 이미경 집사, 이영미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3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에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Mark 12:41-44 ----- Pastor Kim
Sermon -----	“All That We Have to Live On”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Leader
Closing Praise -----	“Jesus, We Love You”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0장(통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Hymn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대표기도 -----	시편 1 ----- 김은영 집사
Prayer	Psalm 1
찬양 -----	“오 주여 정결케 하소서”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6:1-13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6:1-13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어둠 속에 들린 말씀”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다함께
Hymn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어둠 속에 비친 영광 이사야 6:1-7

“웃시야 왕이 죽던 해”란 유능한 왕의 통치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 유다의 쇠퇴가 시작되는 때, 본질적으로는 앗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이지만 어둠이 예고된 가운데(5:3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어둠 속에 비친 영광, 어둠 속에 들린 말씀, 어둠 속에 남은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3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왕이신 여호와 만군의 주를 보았습니다. 유능한 왕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 이전에,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영광스러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알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드러난 우리의 가난함에 연대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임하는 것이지만 이사야처럼 매일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한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습니다. 천사도 그 입과 발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보고도 산 사람들은 모두 은혜의 옷자락에 덮힌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보고도 살 사람은 없지만, 살아서 보도록 은혜의 옷자락을 덮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은혜 없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보았다면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가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한 우상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거룩 없는 긍휼이 헛되듯이, 죄를 미워하여 돌아서는 회개 없는 용서도 헛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은혜로 용서 받았기에 거룩을 잊어도 된다는 속삭임은 현대 교회 앞에 놓인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와 영광 앞에 입술이 더러운 자임이 드러났지만 속죄제가 드러진 제단의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는 경외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나왔던 무지함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교회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의 증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얼굴엔 광채가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교회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일을 그치고 그 영광 앞에 드러난 세상의 죄악됨을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분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